

미래과학교육원, 수학 학습코칭 기본 과정

수학 학습상담 및 코칭으로 학생의 수학 자신감 회복 지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수학 학습코칭 기본 과정, 2026 수학클리닉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총 16시간) 초등교사 40명과 중등 수학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수학 학습부진이나 수학 불안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연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ZOOM)와 대면 접正因为 연수(고양·수원)를 병행해 지역 접근성을 높였다.

연수는 학생의 수학 학습 어려움을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진단·분석하

고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이론 중심 강의를 지양하고 수학클리닉 전문검사 활용, 학습 상담 및 코칭 실습, 실제 사례 나눔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연수 후에는 연수 이수자를 중심으로 '수학클리닉 전문상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찾아오는 수학클리닉'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학 학습 상담과 코칭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수학클리닉 직무연수는 연수 이후 학생 상담과 자료 개발까지 연계되는 실천 중심 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생 및 맞춤형 수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택시 통합면허 발급 긍정 검토 환영"

오산시가 화성시와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놓고 행정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면허 발급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오산시와 화성시에 택시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각각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결론 대신 통합면허 발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시에 통합면허와 관련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회의에서는 사무처리 규정 가운데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산시는 사무처리 규정상 기준 차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로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의 경우 오산시는 운전 경력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2년 3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을 위해 화성시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제2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배분되는 신규 택시면허 92대를 두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배분 비율을 이전에서 비롯됐다.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지난 2018년 신규 면허를 화성시 75%, 오산시 2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화성시가 이후 90대 10 비율을 요구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송민수 기자

김경희 "2026년은 민선8기 완성의 해…성장·민생 동시 도약"

1조3506억 원 예산 편성…반도체·드론 신성장과 체감형 민생정책 본격화

5대 역점과제로 산업·복지·교통·안전 균형 추진

병오년 신년 기자회견서 반도체·드론·주거·복지 아우른 2026 이천시 시정 청사진 밝혀



김경희 이천시장은 8일 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2026년 이천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은 민선 8기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결실로 완성하는 해"라며,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 '둔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향해 훌륭히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도 본예산 1조3,506억 원을 편성했다. 김 시장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을 우선 배치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부진 사업 정비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확장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올해 이천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굴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약 120억 원 규모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이천반도체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연접개발 완화로 확대된 산업단

지 조성 여건을 활용해 대월2일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22만㎡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확장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청미천 비행장과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드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 방산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이천을 드론 산업 중심도시로 키워간다.

중리택지는 4472세대를 수용하는 교육·문화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3개 역세권 개발과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민간 도시개발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폐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노후화된 이천타미널은 2029년까지 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호텔 시설로 재탄생시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는다. 청년 이룸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5060 은퇴세대의 사회 재참여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과 여성비전센터, 어린이드림센터 등 핵심 복지시설을 완성하고, 보훈수당 인상과 통합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

송민수 기자

이천시, 중장년 채용행사 17개 기업 133명

이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인생2막 중장년 채용행사'를 19일 시청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겨울로 운영해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중장년층에 특화해 운영하는 첫 시범 사업이다. 시는 1월과 7월을 중장년 집중 채용 기간으로 설정했다.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지역 산업 현장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 까지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열린다. 단체급식,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복지,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참여해 약 13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교외선 운행 구간 교차로 혼잡 개선

의정부시는 교외선 열차 운행 이후 교차로 정지신호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외선은 경기북부 동서축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재개통한 광역철도다.

의정부역을 출발해 양주를 거쳐 대곡역까지 약 30.3km 구간을 왕복 9회(주말 10회) 운행 중이다.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서부로 일대는 일평균 통행량이 3만 대 이상이며 교외선 선로와 교차로 간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

이에 차량의 오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진입 전과 통과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에서 희망 기업과 1대1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이천시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고용 정책 안내도 제공한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가 참여해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하고 신중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초·활용 교육과 정도 안내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중장년층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지역 산업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열차 통과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적색으로 운영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열차와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녹양역·의정부고등학교 방향의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부여해 서부로의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했다.

시는 열차 통과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적색으로 운영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열차와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녹양역·의정부고등학교 방향의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부여해 서부로의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했다.

송민수 기자

이상일, "시민과 함께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겠다"

이 시장,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 등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 잇따라 산단 이전 반대 회견에 공감



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훌륭다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과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 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팝(fab)이 착공했고, 산단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서 상태"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의 신속 처리로 2024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산단 내 3GW LNG 발전소를 통한 초기 전력 자립, 동해안 원전과 혼남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HVDC 전력 고속도로, 한국전력과 관계 부처가 함께 중장기 전력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훼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의왕시 '대사증후군 상담실'

연중 운영…무료

의왕시는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8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보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 여러 위험 요인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방지하면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상담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 기본 검사를 통해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검사와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혈관 탱탱 벤드 운동 교실·고혈압·당뇨병 교실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지원에 주력한다.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지역 보건팀에서 안내한다. 검사받기 위해서는 전날 오후 10시 이후 꼭 금식해야 한다.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1년…세수 136억 증대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4.8%p 끌어올리며 총 136억 600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1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후 시행된 올해 정기분 지방세 징수 결과 세목별 1월 면허세 3.0%, 6월 자동차세 6.3%, 7월 재산세 2.3%, 8월 주민세 6.5%, 9월 재산세 2.4%p씩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 미감전 미납자 17만 7000명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집중 발송해 징수율을 8.3%p 높였다. 이를 통해 단일 세목으로 27억원을 추가 징수하며 종이고지서 중심의 기존 방식보다 암도적인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증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지 시점과 대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고도화해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는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과 단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비 지원…월 10만원

화성시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도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1인당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달리 미등록 아동은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p